



2013 건협 메디체크 사랑나눔

“나눔의 행복을 함께해요”



2,000명이 함께 한 사회공헌활동 덕분인지
 강원도 고성군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메디체크 사랑나눔’ 활동은
 본부 및 16개 시·도 지부의 전체 직원이 차수별로
 나누어 사랑과 행복의 시간을 함께했다.

글 주연욱 기자 사진 이건중(STUDIO 100)

매년 1회 직원 전체 연수를 통해 소통과 정보 공유, 화합과 봉사의 시간을 갖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13년도 어김없이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전남 여수에 이어 올해는 강원도 고성군 텔피노 골프앤리조트에서 1차 9월 9일~11일, 2차 9월 12일~1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이 마련되었다.

첫날 숙소에 도착하여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각종 시상과 더불어 조한익 회장과 외부강사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우수 사례발표와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저녁식사 후 펼쳐진 문화공연의 밤은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날은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식사를 모두 마치고 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중심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대강당에 모두 모였다. 지부별로 배정된 봉사활동 장소를 확인한 후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건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이번 봉사활동 중 직원들의 노력이 가장 돋보인 곳은 고성군에서 선정한 9곳의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이었다. 노후된 주택에서 그 동안 관리 소홀로 인해 집안 내·외부가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가구를 선정, 본격적인 개선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16개 지부 중 8개 지부가 참여해 벽지, 장판 교체와 더불어 집 안팎의 청소는 물론, 가전제품 및 가재도구 세척까지 도왔다. 개인적인 이유로, 형편이 좋지 않아 낙후되고 정비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되어 힘든 하루였지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3개 기관을 방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시설 환경 정비 및 목욕 봉사, 나들이 지원 등의 활동도 이어졌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아모르뜰로 봉사활동을 나선 울산, 강원지부 직원들은 준비해 간 건강검진 시설이 구비된 버스를 활

용, 엑스레이 촬영을 비롯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시설 내의 화장실, 창문, 창틀 등 평소 손길이 닦기 어려웠던 부분을 말끔히 청소해 더욱 깨끗해진 환경에서 입주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건강한 환경이 건강의 기본

환경정화활동 또한 이번 사회공헌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고성군 내 6개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여름철 행락객들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원리 유원지에는 조한익 회장이 동참해 직원들과 함께 입구 주차장부터 유원지 일대를 돌며 집게로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환경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한익 회장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은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건강지킴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사람에서 자연으로 스펙트럼을 넓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협은 고성군에 사회공헌후원금과 의류 1,000여 점을 기증했으며 이는 고성군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건협은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직원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연탄나누기, 농촌일손돕기, 복지기관 자원봉사, 환경정화활동 등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3년 강원도 고성군 곳곳에 터는 건협 인의 봉사의 손길은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큰 한가위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런 이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에 건협인의 사회공헌활동은 전국 구석구석을 돌며 계속 이어질 것이다. ◎